

# ‘아시아 대표 크루즈 기항지 여수’ 알리기 분주

###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참가... 여수항 인프라·관광자원 소개 크루즈 선사와 1대1 상담... 지역 관광지 일원 팸투어 진행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여수시가 아시아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서 여수항 알리기에 발걸음이 분주하다. 여수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에 참가, 여수항을 홍보하고 국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펼쳤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아시아권 크루즈 산업 관계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여수시는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여수, 부산, 인천, 제주, 속초) 자격으로 참가하여 여수항의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크루즈 목적지로서의 전략과 방향성을 알렸다.

특히 행사 이틀날에는 '로얄캐리비언그룹', '홀랜드아메리카', 'MOL크루즈' 등 글로벌 주요 선사 7곳과의 'B2B 네트워킹 이벤트'가 열렸다. 여수시는 크루즈 선사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국내 다른 기항지와 차별화된 여수항의 강점을 홍보하는 데에 특히 집중했다. 이에 앞서 여수관광항공사에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MSC 크루즈 선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수 엑스포여객선터미널과 지역 내 관광지 일원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여수시, 전남관광재단 등 크루즈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MSC 크루즈의 한국 시장 진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제 크루즈 선을 여수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항의 장점인 15만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 부두 여건과 과거 대형 크루즈 입항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입항에 따른 유관기관 지원사항 등을 적극 홍보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장 스카이다워, 오동도, 낙안읍성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타 항만과의 차별화된 지역 관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여수항에는 총 2척의 국제크루즈가 입항했으며, 오는 10월 프랑스 포넌트사 '르솔레알호(Le Soleal)'와 11월 일본 유센사 아스카 2호(ASUKA II)의 입항이 예정되어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크루즈 산업은 국제적으로 도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한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크루즈선이 여수항을 찾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ASIA CRUISE FORUM JEJU



여수시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11회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에 참가, 여수항을 홍보하고 국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펼쳤다. 여수시 관계자들이 B2B네트워킹 이벤트를 마치고 업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광양시, 투자유치 순풍 ... 신라철강과 250억 협약

### 고급 강재 '냉연' 가공유통 전문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전기강판용 슬리터라인 설비 증설

광양시가 12일 철강 전문 가공유통기업 신라철강(주)과 250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투자협약에 따라 신라철강은 2025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해 광양국가산단지 명당3지구 전기강판용 슬리터라인 설비 등을 증설할 계획이다. 23명의 직원 고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신라철강은 포스코가 생산한 고급 강재 '냉연' 제품을 가공유통 전문 회사로, 자동차와 설비를 이용해 냉연코일을 절단 가공해 공급하는 업체다. 지난 2022년 광양국가산단지 명당3지구에 180억원을 투자해 광양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이번 증설 투자로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에 들어가는 코일 가공설비를 증설해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김진호 신라철강(주) 대표는 "신라철강은 냉연



신라철강(주) 공장.

강판 가공조각 기술 등을 개발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최고의 품질과 양질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해중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철강 전문 회사

와의 투자협약으로 광양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확보

### 공모 사업 선정... 요트·육상·유도·롤러 1억5000만원 지원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여수시에 따르면 요트·육상·유도·롤러 등 4개 팀이 대한체육회 주관 '2024년 하계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공모 평가지표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계획 ▲경기력 향상 계획 ▲인권 문화 조성 노력 ▲국가대표 선수 확보 실적 ▲사회공헌 노력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면서 4억 7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예산은 종목 및 팀에 소속된 선수 수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체육 장비 구입, 전지훈련비, 우수지도자 초청 훈련지도 수당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용우 여수시 체육지원과장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수들의 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고흥 유자 '우량품종 생산 연구소' 개소

고흥군이 유자 우량 품종 생산을 위해 유자연구소의 문을 열었다.



<사진> 연구소는 고흥 유자의 명성을 높이고 유자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립됐다. 연구소는 프리미엄 유자 생산에 적합한 품종 육성, 동해 안전 생산 기술 정립, 수출에 적합한 가공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흥유자동화법인과 협력해 우량품종 유자단지를 조성·확대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유자 지리표적지 14호로 전국 최대 주산지이자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유자

재배의 1번지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유자연구소가 세계 최고 프리미엄 고흥 유자의 생산·가공·유통·수출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위해 힘 모읍시다”

### 조직위·한국관광학회 협력 협약 학술행사·네트워크 공유 등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섬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여수 소호호텔에서 열린 제96차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식 행사에 맞춰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위한 학술행사 개최, 국내외 섬 관광 네트워크 공유 등을 위해 협력하고 조직위는 한국관광학회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기명 조직위원장(여수시장)은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한국관광학회에서 힘을 모아주기로 했다"면서 "세계 최초로 여수에서 열리는 섬박람회가 섬 생태 문화를 보존하고 섬의 미래 가치를 확산시키며 공동 번영하는 국제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국내외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국관광학회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제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 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금오도, 개도(부 행사장) 등에서 열린다. 주 행사장은 섬 관련 주제관, 생태문화관, 미래관 등이 전시되고 다양한 세계 섬 문화 공연 등이

열린다. 부 행사장에서는 해상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등이 계획됐다. 한국관광학회는 1972년 창립된 국내 최초 관광학 분야 전문 학회로, 현재 80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국제학술단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수해·폭염 재해 대비 주민 안전 총력”

### 고흥경찰 녹동파출소 민·관 캠페인... 열사병 예방 수칙 등 홍보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가 지난 11일 고흥군 도양읍 버스터미널, 도양읍 선착장, 녹동고등학교, 차경사거리에서 고흥군민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및 재난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도양읍사무소와 녹동고등학교, 도

양읍 생활안전협의회·주민자치회 등 경찰서 유관기관 70여명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자연재해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도양읍 일원 산사태, 급경사, 저지대주택 밀집지역 취약개소에 대해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또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및 주택가 등 주민사전대피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기관간 전파하고, 군민을 상대로 집중호우와 폭염 시 나이가 많은 농민들에게 영농활동 자제를 당부,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등 재난 피해 시 행동요령과 대응방안을 홍보했다. 김형남 녹동파출소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올해는 예년보다 철저히 자연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안전한 도양읍 만들기 확산과 주민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여름밤 화엄사에서 즐기는 영화음악

### 다음달 3일 음악회...구례 거주민 등 500명 초청

지리산 화엄사에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제4회 모기장 영화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3일 오후 7시 30분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화엄사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100명을 신청받고 구례 거주민 등 총 500명을 초청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 뮤지컬 배우인 콘(KoN)이 출연해 뮤지컬 영화를 해설하고 동료 배우 윤정렬·박해민과 함께 뮤지컬 콘서트를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개인 돗자리와 우산 등을 준비해야 하며 화엄사 신도회와 포교사회에서 간식·음료를 선불로 제공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난해 열린 화엄사 화엄음악제.

화엄사 주지인 덕문 스님은 "지리산의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잠시 잡념을 잊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며 "특히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